



전주매일



민주 전북자치도당, 제3차 상무위원회의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상무위원회와 함께 전북정책비전센터·전북민생지원센터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정현을 익산시장 등 도내 기초지자체장, 도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올해 전기차 화재예방 예산 지원

전주시, 충전시설 지상 이전 7억4200만원·화재 안전시설 설치에 1억600만원 투입

전주시는 2025년도 전기차 화재 예방 구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화재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8일 전주시장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전주시 기후 대응과는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단, 지상 설치 불가한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설치 후 지하 1층 출입구 인근에 계획했다.

신축 건축물 지상설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은 전주시 건축과와 재개발 재건축과에서 담당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 준공 정비 사업 및 주택 건설 사업의 지상 설치 권고안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세부 추진계획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은 최종 목표 1097기 중 올해는 280



전주시는 2025년도 전기차 화재 예방 구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여기의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이 가능한 공동주택(아파트) 설치를 지원한다.

먼저 사업비 7억4,200만원(도비 3억 4,200만원, 시비 4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 시설을 지상 공간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며 대략 아파트 1개 단지 당 7기 정도 배분되며 약 40개 단지가 혜택을

을 받게 된다.

먼저 급속 충전시설 기기를 이전하는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다음으로는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하 설치된 곳이고 세 번째로 지하 1층 설치 공동주택 중 2000년도 이전 사용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안전도의 위험 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다.

또한, 1억600만원(도 4,400만원, 시 6,200만원)으로 17개소(충전시설 지상이전 불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내용은 화재 안전시설 4종(방화벽, 질식소화포, 이동식방사장치, 감시카메라)설치이다.

한편 전기차 화재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과충전'을 막을 방안을 조례에 권고안의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00% 완충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과급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과충전을 방지할 장치 부작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각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기차 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차의 안전을 위해서 80% 미만으로 충전을 하고 있고, 스프링클러 작동 개시 온도도 각 단지에서 낮추는 추세에 있으므로 여기에 전주시 조례에 권유 규정만 넣어 줘도 각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근거 규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화재 안전시설 설치 사업 지원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올 상반기 내 첫 삽

2027년 개관 목표... 익산시, 올해 37억원 예산 확보

익산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올해 첫 삽을 뜬다.

익산시는 청소년디딤센터 공사비 일부와 감리 비용 등 예산 37억 원을 확보하면서, 상반기 내로 건립 공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합열을 외리에 동지를 뜨는 '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 치유·재활 국립 시설이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2022년 기초 조사, 2023년 환경 조사 및 설계 착공,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시설(사회복지 시설, 도로) 결정 등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보상금과 설계 용역비로 1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2025년 공사비 일부와 감리비로 37억 원을 확보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건립 공사에 돌입한다.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이나 우울,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 9~18세 청소년을 지원하는 거점형 치유시설이다.

상담부터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생활보호, 진로탐색, 체험활동 등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제 지난 2년 간 디딤센터 치유과정 참가자들의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 각종 위험 요인이 감소하고, 긍정 지수가 증가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일상생활 속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디딤센터는 경기도와 대구에 각 1개소씩 있는만큼, 호남권역 청소년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실정이다.

시는 전문적인 치료·재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익산에 국립형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가 설립되면 지역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가정의 기능 저하나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등 다양한 영향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며 "마음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거주형 치유재활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자치도, 고품질 '김' 생산 길 열다

도 수산기술연구소, 플무원 등과 손잡고 육상양식 성공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을 확보하며 연중 고품질 김 생산의 길을 열었다.

김 육상양식은 해양 오염원 차단과 질병 관리에 유리하며, 적은 면적으로도 고생산량을 자랑하는 기술이다. 단 포자를 유업으로 배양해 대형 수조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병해를 예방하며 연중 고품질 김 생산이 가능하다.

도는 2022년부터 (주)플무원과의 공동연구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학계와 협력해 김 육상양식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다.

특히, 단포자 대량 방출 유도와 안정적 배양 기술을 연구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하며, 생산 기간을 기존의 1/3로

단축하고 성장률을 10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4톤 규모의 수조 4개를 활용해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대량생산 기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스마트배양기와 AI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해 배양 조건을 정밀 제어하고 자동화로 인력과 시간을 절감해 생산 단가를 낮췄다. 도는 김 가공품 개발과 대량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김 육상양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플무원, 공주대학교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우량김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국가 R&D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미래로 세계로! **성행동하는 부안**

謹賀新年

2025

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協心圖進
협심도진

부안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